

대통령 참모, 얼굴도 목소리도 없어야... 장관과도 비밀회동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1983년 10월 9일 한글날 버마(현 미얀마)에서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터졌다. 대통령을 수행했던 대한민국의 정부 최고위급인사 17명이 한꺼번에 희생됐다. 서석준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김재익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도 포함됐다.

당시 나는 그해 1월에 있었던 정부인사에 따라 KDI를 떠나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현 산업연구원, KIET)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버마에서 급히 귀국한 전두환 대통령이 12일에 나를 청와대로 불러 김재익 수석 후임으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맡으라 했다. 이틀 후인 14일에 전면개각과 청와대 비서관 개편 발표가 있었다.

나는 전 대통령과는 사적(私的) 인연은 전혀 없었다. 다만 KDI와 KIET에서 공적인 업무로 수차례 직접 보고할 기회가 있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경제수석 비서관직을 맡게 됐다고 본다. 실제 나를 KIET 원장으로 보낸 것도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고 들었다.

나의 대통령 경제수석 업무는 일요일이었던 15일부터 시작됐다. 그 날 청와대에 들어가 경제 비서관 보고를 받고

아웅산 테러 뒤 경제수석 맡게 돼 대통령 “전임자 없으니 내가 인계” 언론 인터뷰, 소신 밝히기 자체 모든 공은 각 부처 장관·실무진에

있을 때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소(小)식당으로 나를 불렀다. 전 대통령은 “이봐, 사공수석. 전임자가 없으니, 경제수석 업무를 인계해 줄 사람이 없지 않나. 내가 직접 해야겠다”며 오찬과 함께 2시간 넘게 수석 업무 전반에 관한 소상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 지침을 줬다.



대통령은 시간을 내어 경제현장을 찾았다. 사진은 1983년 11월 경인에너지 인천공장(현 SK인천석유화학)에 방문한 모습.

제일 먼저 경제수석은 대통령을 대신해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경제기획원의 예산업무를 철저히 챙기라 했다. 당시 정부는 85년 1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84년도 예산을 동결할 정도로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 등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해 예산집행이 잘못되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의 분신인 경제수석이 직접 챙기라는 뜻이었다.

그다음, 경제수석은 정말 바쁜 자리다. 매일 매일의 행정 업무와 단기 정책 현안에 매달리다 보면 조용히 앉아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정책을 구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니 경제를 보는 시각이 같고 같은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적인 KDI 원장(김기환 KDI 원장은 상공부 차관에 부임)과 나의 후임



경제수석이던 1984년 중소기업 전시회를 참관하는 모습.



1984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 회의 장면. 오른쪽부터 경제수석비서관인 필자, 유흥수 정무2수석, 김병훈 의전수석, 강경식 비서실장. 오른쪽 작은 메모는 전두환 대통령의 친필로, 뉴스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자주 내렸다. [사진 사공일]

KIET 원장부터 즉시 찾으라 했다. 나는 그다음 주에 신병현 부총리, 김만제 재무부 장관과 상의한 후 양 연구원장 후보를 선임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전 대통령은 또 경제수석이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시간을 내어 경제현장을 찾아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수석 재임 시 나는 가능한 주말에 정부부처 담당 국장을 대동하고, 서울-경기 근교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주로 방문해 현장 애로와 정책 건의를 듣고 소관 부처로 이관해 해결해 준 사례가 많다. 그중에서도 기아의 소형 승용자동차 수출이 무산될 뻔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또한 전 대통령은 수석 업무의 중요한 일환으로 각종 국내외 경제 관련 통계와 모든 경제부처 관련 주요 프로젝트의 집행 진도·일정을 챙기고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전 대통령은 각종 통계와 일정에 관해 공식 석상뿐만 아니라, 수시로 사무실 인터뷰나 집 전화로 확인했다. 석간 신문 기사나 저녁 뉴스 보도내용을 확인하고 다음날 보고하라는 지시도 자주 있었다. 실제 이 역할은 물리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당시에는 휴대용 전화기가 없을 때다. 대신 ‘삐삐’ 호출기를 24시간 소지해야 했다. 다행히 나는 3년 8개월 동안 호출에 늦어 낭패를 겪은 기억은 없다.

대기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인들과도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도 강조했다. 실제 나는 경제수석 재임 시 수시로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정주영 회장과 구자경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정수창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유기정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비좁은

나의 사무실에서 만나 정책 건의를 듣고 토론했다. 또한 이병철 회장, 김우중 회장, 최종현 회장 등 개별 그룹 회장들의 수석실 방문도 잦았다. 물론 이 자리에는 항상 담당 비서관이 배석하여 이들의 건의사항을 챙겼다.

경제수석이 경제정책 전체를 이끌다 보면 불가피하게 온갖 비방과 모함, 투서 등이 있을 수 있다. 전 대통령은 전임 김재익 수석에 대한 빈번했던 투서와 각종 비방 첩보의 구체적 사례도 언급했다. 그런 것에 겁먹지 말고 대통령을 믿고 소신 있게 일하라고 당부했다.

나는 수석 재임 4여년 동안 이러한 대통령의 지침과 함께, 나 스스로 정한 원칙을 갖고 일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참모인 경제수석으로 내각과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강력한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대통령의 힘이 실린 경제수석은 ‘얼굴 없고(face-less), 목소리 없는(voice-less)’ 대통령 분신의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군의 ‘작전 참모’적인 수석비서관이 직접 나서 일선 사령관 역할을 해선 안된다는 원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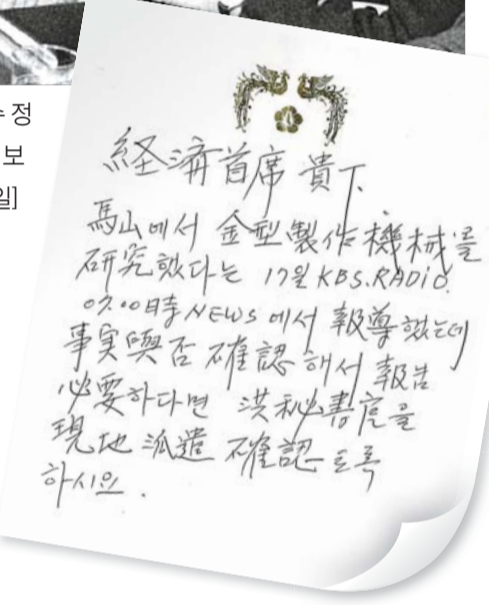
반면에 모든 공(功)은 ‘야전군 사령관’적인 담당 부처 장관에게 돌려야 한다고 믿었다. 소관 부처 장관의 리더십과 부처 실무진의 사기 진작은 국정 운영의 기초가 된다. 나는 경제부처 장관들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만나거나, 수시로 전화로 협의했다.

특히 경제 부총리와 재무부 장관과는 수시로 아침 출근하는 길이나 일과 후 퇴근길에 수행비서들을 제외한 부처 간부와 청와대 비서관에게도 비밀리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났다. 신병현 부총리와 김만제 재무부 장관과는 지금은 없어진 남산 외국인 아파트 빌딩 내에 있던 조그마한 한식집에서 종종

조찬을 한 기억이 난다. 이런 자리에서 청와대와 수석의 생각과 정책 아이디어도 장관의 것으로 추진토록 했다. 그리고 사후에 관련 부처 실무진으로부터 직접 장관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경제수석 재임 기간에 나는 국내 언론과 구체적 정책과 관련해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것을 특별히 자제했다. 단지 한국 경제의 실상과 정부의 경제 운영 방향과 정책 내용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국가 정상 차원의 경제 외교를 위한 대외 활동만은 예외로 했다. 이는 당시 국내외 여건상 불가피했다. 사실은 이것이 나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됐다.

3년 8개월 경제수석 재임기간 중 내 역할은 대통령의 비서(secretary)로서의 역할과 대통령의 자문관(advisor)으로서의 역할로 크게 나뉘볼 수 있다. 물리적 시간 배분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로서 일하는 시간이 월등히 많았다. 9개 경제부처(당시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11개 부처 중 보건사회부와 노동부는 청와대 비서실 직제상 타수석실 소관으로 제외) 관련 모든 행사의 사전 준비와 보고, 대통령 수행과 배석, 주요 정책 관련 보고와 사전 조정(장·차관에서 실무 국장 선거



책상 대신 현장 수시로 찾았다 이병철·정주영 등 기업인과 소동 대통령 자문역할로 면담도 잦아 지시 농칠세라 24시간 삐삐 소지

지) 등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다. 물론 비경제부처 주요 보고나 행사에도 경제수석은 대통령을 수행·배석해야 했다. 대통령의 외국 순방은 물론이며 잦은 지방 순시에 수행해야 했다. 거의 온종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에 머물러야 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기대도 그러했지만 나는 대통령 자문역할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일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의 올바른 경제 관련 국정 정책판단에 도움을 주는 일이다. 이 자문 역할은 대통령과의 수시 독대와 잦은 서면 보고를 통해 이뤄졌다. 전 대통령은 짝이 나는 대로 나를 본관으로 부르거나, 전화로 세계 경제와 거시경제 현안에 관한 보고를 즐겨 받았다. 특히 외국의 유명연구기관이나 국제기구가 내놓은 세계 경제안보 등에 관한 요약보고를 원했다.

수시로 서면 보고서를 올리면 검토 후 반드시 지시와 코멘트가 있었다. 고 김병훈 의전수석에 따르면 대통령의 수석과의 정책 관련 독대 중에서 경제수석과의 면담이 가장 많았다. 국정의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대통령이 어느 분야의 참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를 본다. 당시의 국정 우선순위가 경제에 실려 있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강력한 대통령 책임제하에서는 대통령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모든 분야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국정 모든 분야 정책 판단을 비서진의 자문역할로 맡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The JoongAng Plus에서 연재 중인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시리즈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